

위선자들을 위한 소망

마태복음 23:1-39

지난 주말, 제 동생이 아카데미 시상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은 그의 친구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어떤 배우와 제작진이 상을 받을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수상자는 연극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 문화의 중요한 기둥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풍부한 문화 속에서 배우들은 '위선자(hypocrite)'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면을 쓴 연기자'입니다. 위선자는 장면 중간에 가면을 바꿔 쓰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객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선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했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위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기꾼이었던 사람.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당선 후 번복하는 정치인.

하지만 위선이 항상 '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은 우리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행동을 할 때. 약속을 어길 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할 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위선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세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위선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회석되지 않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던 바로 그 위선자들에 대한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위선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기다

예수님은 1-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심판으로 정복당했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와 회개와 순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머리와 마음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따라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은 따라 하지 마." "말한 대로 실천하라." "너에겐 규칙이지만, 나에겐 예외야." 이런 말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레이 목사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613개의 개별 계명을 찾았으며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율법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부담을 선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무게와 율법주의적 의무를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의존은 결국 자기 과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에 감탄하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공개적인 인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9절은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제자매들과 저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전형적인 호칭이죠. 그런데 사춘기 무렵, 제가 주인공과 비슷한 또래인 소설을 읽었는데, 그 주인공이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서 저도 따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 목소리] "엄마, 아빠"에서 [어른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단 한 명, 우리 큰누나는 아직도 "아빠의 딸"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혈연관계나 직업적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직함이나 이름 뒤에 따라오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목사님 한 분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정중하면서도 친근하게 부를지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쉽지, 나를 '지극히 거룩한 존경 받는 초대형 목사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 앞에서 쉽게 위축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문화적 영향 속에서 우리는 직함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높여야 한다고 배웁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리더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또한 자신의 영적 책임을 리더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존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11-12)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예수님께서 이전 대화에서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정반대입니다.

제 대학 시절 목사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밥 목사님은 설교를 계속하시며 강단에서 내려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에게도 같은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교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완고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살아갈수록, 저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겸손하지 않았으며,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심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드러내신 후, 희석되지 않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희석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

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 13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경고를 요약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위선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화:

1. 너희는 반역자다...

“너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린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에 대한 언급이 많으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자기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원했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2.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기에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3.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점을 찾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손가락을 뒤로 꼬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 말을 취소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깨지기 쉬운 맹세를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남을 위한 법, 나를 위한 예외”라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4.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다...

네 번째 화는 오히려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정해진 십일조를 바쳤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는 충실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사용하는 새 국제 독서 성경(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 6:8)

지난 주일, 저희는 음식과 의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40개의 상자를 모았습니다. 지역 봉사 코디네이터 어니(Ernie) 씨는 트럭에 실린 물품을 끈으로 묶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류도 화물트럭 한 대를 가득 채웠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마다 이 선한 일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눔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의 비율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것이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5. 너희들은 여전히 더럽다...

"너희들은 모든 얼룩을 씻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여전히 깨끗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손도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수련회에서 푸딩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푸딩으로 뒤덮였는데, 손도 똑같이 더러워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18)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6. 너희들은 여전히 죽어 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이는 순례자들이 무덤을 실수로 건드려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이 하얗게 칠해지면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눈에 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부패와 불경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악취를 풍기는 것뿐이었습니다.

7. 너희들은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

마지막 화는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44a)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33)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죄악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십시오.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로, 그의 형제 가인에 의해 죄와 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가라는 조금 더 찾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에 의해 살해된 역대하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첫 번째 살인과 마지막 살인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리새인들 정죄하고 있음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불편한 상황을 느끼셨다면,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잃었고, 참된 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버렸고,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38)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마지막 주간,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죄에 대해 격분하며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처럼 보이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고뇌입니다. 슬픔과 사랑이 섞여 흐릅니다. 우리는 한 구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구체화되어 있음을 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 (마태복음 23:37b)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잘 알아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폭력적인 증오의 피로 물든 평화의 도시.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왕의 성, 그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성!

예수께서는 그들 마음의 필요에 대한 답으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필요도 충족시키십니다. 우리 역시 길을 잃은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 일곱 가지 화를 돌아보십시오.

1. 너희들은 반역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유혹을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위선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 20) 예수님께서서는 구원하실 만큼 강하시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서는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다시 결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방황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와 그분의 보호와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에요.” (요한복음 14: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다른 이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2)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다른 이들도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3.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깨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공허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요한복음 14:6)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4.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온 우주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변화된 마음으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공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5. 너희들은 여전히 더럽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죄를 지었을 때, 충분히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 곧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한없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6. 너희들은 여전히 죽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 회칠한 무덤이 될 것이 아니라, 눈처럼 희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18)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되는 대신, 매일 부활의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명령의 부담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매일 새롭게 살아갑니다.

7. 너희들은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마지막 “화 있을진저”는 크신 약속을 동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기는 자는 이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과거의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와 상처로 인해 진흙투성이고,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결론

예수님께서서는 심판하셔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위선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린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벼운 멍에를 주시며,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한 순종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의적인 불순종과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고 쉽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뜻이다.” 심판이 오는 것은 자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가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선포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 23:39)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자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도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마 23:32) 하신 말씀대로 최악의 길을 걸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의로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타내신 긍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석되지 않은 심판 대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선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위선자가 되어 상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곧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총만함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이후에는 기도과 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팀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